

The One Work

총괄기획: 조주현
 공동책임연구자: 이수정, 조주현
 주 연구자: 김성은, 마정연
 해외 연구자: 마틴 게르만, 자넷 비숍
 특별 기고: 김남시, 안소연, 허호정

국문 편집 및 아카이빙: 변현주
 행정실무: 구예나
 번역: 서울셀렉션, 이정룡, 장우진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혁

전소정(b. 1982)은 ‘타자’, ‘감각’의 영역을 작업의 중심축으로 두고, 이산, 이주, 유목, 망명에 결부된 개인적, 사회적 삶의 조건들을 감각적 번역을 통해 인식하고 재위치시키는 작업을 해왔다. 영상, 설치, 조각, 사운드, 퍼포먼스, 출판 등 다양한 매체를 바탕으로 현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환기시키는 비선형적 시공간을 창조하거나, 인터뷰, 역사적 자료, 문학과 글쓰기, 음향적 감각을 중심으로 현재적 시공간을 넘어서 다른 현실과 공간을 탐색해 온 작가는 과거와 현재, 미래 사이의 상상적 공간을 가설하고 분화된 감각의 경계를 통합하여 인식의 확장을 시도해왔다. 또한, 작업과 비평의 생산 관계에 관해 질문하며 다양한 관점의 평론가, 타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실험적인 텍스트들을 작업의 일환으로 제작하고, 시각예술가 안정주와 프로젝트 밴드 ‘검은밤’ 멤버로 가사를 쓰고 노래와 연주를 하기도 했다. 일련의 출판 및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작가는 여러 협업자와 연대를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협업을 시도한다.

전소정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스위스 베른 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르코미술관, 파리 팔레트 도교 미술관, 파리 빌라 바실리에프, 제11회 광주 비엔날레, 삼성미술관 리움, 오사카 국립 미술관 등에서 열린 다수의 개인전 및 그룹전에 참여했다. 2014 제14회 송은미술대상, 2016 광주비엔날레 눈 예술상, 2020년 제18회 에르메스재단 미술상을 수상하였고, 2021년 5월 영국 기획자 조셉 오키너가 추진한 글로벌 공공미술 프로젝트 CIRCA에 한국작가로 처음 참여한 바 있다. 2023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그녀의 작품은 한네프켄 파운데이션, 울리 지그 컬렉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리움미술관, 오사카 현대미술관, 울산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두산아트센터, 송은미술재단 등 전 세계 유수의 미술관 및 기관에 영구 소장되어 있다.

연구 개요

아르코의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사업으로 진행된 본 출판물은 그 어느 곳에도 영원히 정박할 수 없는 망망대해로 독자-관객들을 이끌며 쉽게 해명되지 않는 작품들과 비평의 생산에 집중되었던 전소정의 예술 세계에 어쩌면 잠시 거처할 임시 천막을 세우는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 총괄기획자와 책임연구자가 작가와 긴밀한 논의를 거친 후 연구 방향성을 정하고, 그에 따라 2명의 주 연구자, 5명의 외부 필진이 참여한 본 프로젝트는 한 명의 연구자가 하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본연의 작품 연구에 몰두해 학술적 의미를 지니는 에세이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팀은 우선 전소정의 예술 세계가 점유하고 있는 무한한 시공간으로부터 특정한 하나의 순간으로 소급해 나가기 위해, 한 작품이 미칠 수 있는 막연한 동시대의 시공간을 네비게이팅하며 전소정의 작품들이 어떠한 경로를 지나 인간과 역사의 서사를 직조하고 현재에 이르렀는지 검토했다. 그리고 최근 100년 동안 근대 인류사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순간, 코로나 팬데믹의 한복판에 작가가 서 있던 그 지점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주 연구자로 참여한 마정연과 김성은은 각각 영상 미디어와 인류학적 기반의 심도 있는 미술 비평을 통해 물리적, 신체적 이동의 제한, 실제 공간과 온라인 공간의 교차가 가속화되었던 ‘2021년’이라는 구체적 시공간에서 제작된 두 개의 작품 <기계 속의 유령>(2021)과 <그린 스크린>(2021)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두 개의 주요 연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이 전소정 작업에 어떤 의미로 작동했으며, 이후 작가의 예술 세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할 수 있었다.

주 연구자 마정연은 ‘전소정의 영상미디어 실천에 관한 고찰: <기계 속의 유령>를 중심으로,(2023)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팬데믹 시기 제작, 발표한 <기계 속의 유령>에 활용된 ‘드론(drone)’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며, 생물과 융합한 하이브리드 매체로서 이 기계가 생산한 동시대 이미지의 유령성을 탐구한다. 협업자 안정주와의



기계 속의 유령, 2021

공동 작업인 <기계 속의 유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기능을 중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당시 미술관을 무대로 일종의 연극적 상황을 만들었다. 마정연은 <기계 속의 유령>의 설치 무대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육군 기무사가 사용하던 건물이라는 장소의 역사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주요 매체로 등장하는 ‘드론(drone)’의 미디어 기술을 군사적, 생태적 의미로 확장하고 ‘군부’에 의해 통치되는 전체주의 국가의 통제나 ‘전쟁’과 같은 문맥을 소환했다.

2021년 제작된 또 다른 작품 <그린 스크린>에서 전소정은 시각 중심의 근대 문화에서 비껴난 ‘소리’의 (비)물질성에 대한 탐구를 더욱 심도 있게 전개한다. 주 연구자 김성은은 언어나 음악 등 소리를 특별하게 다뤄 온 이전 작업과의 연계 속에서 이 작품을 작가의 수완이 가장 급진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했다. 오랜 시간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비무장지대를 촬영한 이 영상이 국경의 풍경을 ‘보여주는 방식’ 대신 “듣기가 우세한 소통 방식”에 기반해 담아냈다는 점에 주목한 김성은은 ‘소리 인류학’의 관점에서 전소정의 작업을 이론화한다..

이 밖에도 남북의 음악을 다룬 일련의 작업들에서 전소정은 악기와 작곡의 역사를 통해 전통과 현대 간, 문화 간, 시대 간에 일어나는 음악미학의 번역과 소통에 집중했다. 외부 필진으로 참여한 자넷 비숍(Jeanette Bisschops)은



그린 스크린, 2021

전소정의 〈먼저 온 미래〉(2015)를 분석한 글 「감정을 담아 한번 더」(2023)에서 탈북 피아니스트와 남한 피아니스트의 대화, 작곡, 협연의 과정을 통해 두 연주자와 관객 사이를 관통하는 연대와 소통의 감각에 주목한다.

전소정은 2022년 〈야고〉, 2023년 〈싱코피〉를 연이어 발표하며 비가시화된 영역에서 발생하는 파괴와 재생, 인공과 자연, 기계와 생태의 하이브리드 정체성을 생태적 관계와 얽힘의 모티프와 병존시킨다. 이번 연구의 외부 필자인 마틴 게르만(Martin Germann)과의 인터뷰에서 전소정은 농업사학자 후지하라 다쓰시(Tatsushi Fujiwara)를 인용하여 자신의 매체 작업들이 생산과 소비에 매몰된 사고, 균질하고 지배적인 덩어리로 인식되는 것들을 전복시켜 분해의 세계로 재고하기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팬데믹 이후 전소정은 인간과 식물, 그리고 데이터의 이동과 속도의 문제들을 파고들었다. 근대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감각으로써 ‘속도’에 대한 경험을 포착하고자 국경을 넘는 언어의 속도, 정원을 탈출하는 식물의 생태적 속도, 기차의 속도, 데이터의

속도 등을 겹쳐보면서, 그것이 파열시키는 현대사회의 구조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작가는 근대적 속도를 벗어난 사람, 식물, 데이터 등 비가시적 존재들이 경계를 이탈해 어떻게 유랑하고 어떠한 양태로 존재하는지 비추며, 변신과 변형을 거듭하는 이들의 신체성을 시각이 아닌 감각들로 경험시킨다.

2년간 진행된 본 작가 조사-연구-비평 프로젝트는 지난 10여 년간 작가가 느낀 연대를 맺고 함께 작업해 온 많은 비평가의 기존 연구가 밑바탕이 되었다. 본 출판물에는 김남시, 안소연, 허호정의 글을 재수록하여 2021년 이전 주요 작품들에 대한 비평을 수록했다. 전소정의 초기 작업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감각적으로 반복되는 이방인의 이미지를 언어, 정치, 문화, 지정학적 맥락에서 분석한 허호정의 미발표 원고 「이방인, 향해보부터 순간이동까지」(2019/2023), 매체적 조작과 조합을 통해 감각을 재배치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감각의 통합을 이루어낸 전소정의 작업 과정을 매체미학의 관점으로 분석한 김남시의 「매체와 감각의 질서」(2017), 한국 근대 아방가르드 시인 이상(1910-1937)의 초기 시 연구에서 시작된 전소정 개인전 《AU MAGASIN DE NOUVEAUTES》(2020)에서 작가가 서로 다른 시공간의 축을 교차해가며 탈주의 가능성을 모색한 지점을 추적한 안소연의 글 「현혹하는 새로움 앞에서」(2020)는 이 출판물 이후에도 전소정 작업의 비평적 지도 그리기에 주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조주현 (총괄기획자/ 공동책임연구자)

전소정	(다원예술 20021: 멀티버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2016 (Living on the border), 살렌시오, 파리
Education	(Border Crossings - North and South Korean Art from the Siggg Collection), 베른시립미술관, 베른	(Travelling 렌즈 영화제), 렌즈 미술관, 렌즈
2006-2011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미디어아트, 서울	(전술들),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제1회 광주비엔날레, 광주
2001-200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서울	(보더리스 사이트), 문화역서울 284, 서울	(히스토리코드), 제3회 난징 국제 아트페스티벌, 바이저아후미술관, 난징
Selected Solo Exhibitions	(They do not understand each other), Tai Kwun JC Contemporary, 홍콩	(퇴폐미술전), 아트 스페이스 폴, 서울
2023 (Overtone), 바라각 컨템포러리, 서울	2020 (리듬 풍경), 오타와시립미술관, 오타와	2015 (장미로 엮은 이 왕관), 아틀리에 에르메스, 서울
2022 (그린 스크린), 리움미술관, 서울	(아트 플랫폼 아시아 2020 : 토기 방향 오브젝트), 덕수궁, 서울	(아나 : 잠시만 눈을 감아보세요), 마라야 아트 센터, 샤르자
2020 (새로운 상상), 아틀리에 에르메스, 서울	2019 (Now is the time: 우전 국제현대미술전), 우전	(리듬 풍경),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7 (Kiss me Quick),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In one drop of water), 뉴사우스웨일스 미술관, 시드니	광복70주년기념 (북한프로젝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5 (폐허), 두산갤러리 서울, 서울	(디어 시네마: 차이와 반복), 국립현대미술관 MMCA 필름 앤 비디오, 서울	(Wirkkala Revisited), 헬싱키 디자인 미술관, 헬싱키
2014 (밤이 다 되었으니 이 밤을 잊으십시오), 두산갤러리 뉴욕, 뉴욕	(떠도는 영상들의 연대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디지털 아카이브, 서울	(싱글채널비디오),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12 (이면의 이면), 갤러리 팩토리, 서울	(별 헤는 날: 나와 당신의 이야기,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청주	(제15회 서울 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 서울
2010 (심경의 변화), 인사미술공간, 서울	2018 (비디오 나이트, 검은 밤), d/p, 서울	2014 (애 바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할 때마다 부는가?), 프로젝트 스페이스 큐브, 타이베이
Selected Group Exhibitions	(Objectif Video Nice), 비디오아트 페스티벌, 니스	(미술을 위한 캐비닛), 아르코미술관, 서울
2023 (울해의 작가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Unclosed Bricks: 기억의 틈), 아르코미술관, 서울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 퍼블릭 스토리), 안양
(보통 사람들의 찬란한 역사),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하구의 마찰), HIAP -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광주	(HOME/WORK), 시청각, 서울
(It was the way of walking through narrative), 프리즈 필름, 서울	(Re:Sense), spaceX, 코리야나미술관, 서울	2013 (The Shadow of the Future), 부카레스트 국립현대미술관, 부카레스트
(황해어보),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동시적 순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종합극장 : Interspace Dialogue),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회화 아난), 대구미술관, 대구	(씨실과 낱실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What We See), 오사카 국립미술관, 오사카
(숨 쉬는 그곳의 울림), Filmhuis Cavia, NED, 암스테르담	(잃어버린 세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2 (플레이트아트), 문화역 서울 284, 서울
(전시의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청주	(플립북: 21세기 애니메이션의 혁명), 일민미술관, 서울	(Photographic), 대구사진비엔날레, 대구
(미래 수집), 울산시립미술관, 울산	2017 타이틀매저, 김차섭 vs. 전소정(내 세대의 노래),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아트스펙트럼 2012), 리움 삼성미술관, 서울
2022 (감각의 공간, 워치 앤 칠 2.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샤르자 아트 파운데이션, 샤르자; 아르데스, 스톡홀름	(삼라만상: 김환기에서 양푸동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플러툼 없는 연극, 정치없는 정치), 서울변방연극제, 서울
(바라각 컨템포러리, 프리즈 No.9), 코크 스트리트, 런던	(L'Art au centre), 팔레트 도쿄, 파리	(Building Stories), Pilar Corrias Gallery, 런던
(찬란하게 울리는),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고, 수원	(Tell me the story of all these things. Beginning wherever you wish, tell even us.), 밀라 바실리프, 파리	2011 (EXIS), 서울 국제 실험영화 페스티벌, 한국 영상자료원, 서울
(Checkpoint. Border Views from Korea), 리얼 디엔지 프로젝트, 볼프스부르크 미술관, 파리	(In search of global poetry: Videos from the Han Nefkens collection), He Xiangning Art Museum, 선전	2010 (EXIS), 서울 국제 실험영화 페스티벌, 필름포럼, 서울
(수원시립미술관, 부산	(Le monde Plié), La Générale, 파리	(오프엔프리 국제 영화제), 아트하우스 모모, 서울
(시적 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After the Mirror), 세익스피어 앤 컴퍼니, 파리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 아르코미술관, 서울
(Our Life), 오사카 국립미술관, 오사카		2009 (Cream-요코하마 국제 미디어 페스티벌), 요코하마
(경계협상), 리얼 디엔지 프로젝트, 주시드니 한국문화원, 시드니		(플러툼 인 기무사), 옛 기무사(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찬란한 날들), 울산시립미술관, 울산		2008 (연극 되어지다),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직면하는 이동성: 횡단/침투/정지하기), 아르코미술관, 서울		
2021 (수요일은 인디고블루),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대전		
(CIRCA), 피카딜리 라이트, 런던; 코엑스 케이팝 스퀘어, 서울; 신주쿠 유니카 비전, 도쿄		